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제작 · 배부

농어촌 소규모학교 급증 · 신도심 학교 신설 요구 따라
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업무 이해도 향상 차원
유형별 대상학교 선정 기준 · 통합학교 운영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확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는 급감하는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을 제작,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학생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되면서 지역내 학교 재배치 등도 필요하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제1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이해, 제2장 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 제3장 적정규모학교 운영 사전 검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형별 대상학교 선정 기준,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금, 대상학교 선정 사전검토 사항, 통합학교 운영 등을 담아 처음 업무를 접하는 사람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 학생배치 방법, 통학구역 등 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도교육청 조철호 행정과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미래준비학교 16곳 선정

도교육청, 전주 신동초 · 온빛중 등… 27일 업무담당자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초·중등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전북미래준비학교' 16개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는 신동초, 온빛중, 효문중△군산은 개정초, 신풍초, 옥산초, 산북중 △익산은 이리모현초, 웅포중 △정읍은 수곡초, 배영중 △완주는 이성초, 화산중 △장수는 번암초 △고창은 고창초, 영선중 등으로 초등학교 9교, 중학교 7교다.

전북미래준비학교는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AI 교육, 생태전환 교육, IB프로그램 등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시범적 모델학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학생의 배움과 삶의 토대가 되는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책임교육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모색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창조나래(별관) 3회의실에서 전북미래준비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전북미래준비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 방학 중에도 많은 신청이 있었다"면서 "전북미래준비학교가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23일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출범

진학전문교사 · 자문위원 등 총 88명으로 꾸려져
2024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 전략 허브 역할

맞춤형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공식 출범한다.

21일 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오는 23일 8층 회의실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통해 지난해 활동 결과를 성찰하고, 올해 대입 지원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단은 장진호 서림고 교사를 단장으로 85명의 진학 전문 교사와 자문위원 등 총 88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 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눠 2024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연수 및 현장지원팀은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와 권역별 수·정시 입시설명회를 담당한다.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별전형 연구 지원 분석,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연구팀은 단위학교 모의면접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사례집을 개발해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지원한다.

수능전형연구팀은 대학별 정시전형과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팀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학지도 연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전형별 분석과 연구를 통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권역별 맞춤형 상시 진학상담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게 실시되는 진학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단을 65명에서 88명으로 확대했다"면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학생·학부모의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학위 취득 예정자에게 총 7,159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미래 동량 지원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
학위 취득 예정자 등에 장학금 지급

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학위 취득 예정자에게 총 7,159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혁신공유대학은 총 816억 원의 규모로, 컨소시엄 당 102억 원을 투입해 첨단 8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전국에서 7개 대학이 선정, 전북대는 오는 2027년까지 6년 동안 약 90억 원을 지원 받는다.

전북대 에너지신산업사업단은 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에 참여한 재학생 중 성적우수 및 학위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과형장학금'을, 그리고 교내·외 공모전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학위취득 예정자들에게 '성과형장학금II'를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단은 이날 오후 3시 진수당 351호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융합전공자 대표로 화학공학부 최홍석 학생, 부전공자 대표로 경제학부 윤주호 학생, 마이크로디그리 취득자 대표로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욱 학생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두 64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최홍석 학생은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분야 전문교육을 받고 이렇게 장학금까지 받게 돼 기쁨이 두 배"라며 "좋은 사업을 통해 기반을 탄탄히 닦을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정진해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은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컨소시엄 공동 교육과정과 대학별 전문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기반 맞춤형 융합인재 64명을 처음 배출하는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조벤젠' 계 물질 합성, 광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

전북대 임민우 대학원생, 광 반응성 액정 고분자 소재 개발
고유특성 방해하지 않아 다양한 액정 고분자분야 응용 가능

전북대학교 임민우 대학원생이 새롭게 합성한 광 반응성 물질을 이용한 광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액정 고분자 소재를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 반응성 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 소재는 광 에너지에 반응해 흡수한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방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아조벤젠'은 잘 알려진 광 반응성 물질로, 광 에너지에 의해 구조를 이성질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고분자 소재에 광 반응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나노미터 단위에서 아조벤젠들의 위치는 변환될 에너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정광운 교수팀은 아조벤젠계 광 반응성 물질을 새로 합성해 액정 고분자의 측쇄에 전략적으로 도입, 광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재료화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미국화학회 '어플라이드 폴리머 머티리얼즈(ACS)' 2023년 2월 10일자 표지논문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합성된 아조벤젠계 광 반응성 물질은 액정 고분자 소재의 고유특성을 방해하지 않아 다양한 액정 고분자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임민우 연구원은 "에너지 변환 소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미래산업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변환 소재가 활발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전주기전대 부설 평생교육원, 도시농업 기반 기능성 산야초 재배 · 가공 전문가 양성과정 등 운영

전주기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원장 강인주)은 2023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주기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생활권 근거리에서 수준 높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도시농업 및 근교농업 기반 기능성 산야초 재배·가공 전문가 양성 과정 △취·창업자를 위한 반려동물관리사 양성 과정 등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와 반려동물과 교수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학과 실험실습실 등 실제 대학에서 활용하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인주 원장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지원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사업추진 협약을 통해 5월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산학협력 성과확산 공동 발표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1일 '2022년 산학협력 성과확산 공동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메타버스 및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사례로, 인쇄제품생산의 애로공정개선으로 생산성향상과 매출증대방안(사회복지경영과 정영득 교수), 초복장뼈로 인한 심장초음파 스캔 기술지도(방사선과 구본열 교수) 등 6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로 셀프코딩기능을 탑재한 파이썬 기반 드론 시스템 개발(전기공학과 유성구 교수), 노인의 가족지지 및 우울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치위생과 김영임 교수) 등 총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상모 총장은 "산학협력기술개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 기업의 가치창출과 산학동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며 "산업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간 공유와 협업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 '최우수' 등급

전주기전대학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수요자 맞춤 보건산업 인력양성 커플링 사업'이 최우수 등급인 'S'를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커플링 사업단은 생애 전주기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건산업 인력양성을 목표로 산업체 수요에 대응 가능한 채용 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학생 취업률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다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토대로 참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레고로봇코딩 로봇지도사 양성과정'에 전원 합격하기도 했다. 더불어, 병원행정사,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기전대학은 7년 연속 전라북도 커플링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연설문 작성 업무지원 파견교사 모집 유감"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교육청의 '연설문 작성 업무지원 파견교사' 모집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2023년 교육감 연설문 작성 업무지원 중등 파견교사 모집 안내'라는 공문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냈다. 이에 전북지부는 1월 18일 항의 전화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1월 30일 추가 모집 공문을 보냈고, 중등 교사 중에 지원자가 없자 초등 교사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해 2월 14일 재차 모집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것.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제28조 10항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교사를 폐지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파견교사의 취지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자 함이지만 실상은, 교육청 관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컸다는 이유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 중인 교사의 파견 연장 요청에 대해 부동의 처분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 파견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교육청과 부설기관들의 행정업무를 위한 파견교사 모집 안내 공문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